



한국의 보물, 해인<3>

한국의 대표적인 보물의 하나로 오랫동안 믿어지고 전해져 오
는 해인(海印)은, 단순한 보물이 아니라 여러 믿음이 다양한 형태
로 반영된 종교적 성물(聖物)이다.

해인에 담겨진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

이 글에서 필자는 현재에도 민간에서 전승되고 있는 해인(海
印)이라는 보물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분석하여, 과연 이 해인이
어떠한 배경에서 나온 개념이며, 해인에 관한 이야기가 어떻게
변용되었는가를 밝혀보고자 한다. 나아가 이러한 작업을 통해
'해인'에 압축된 한국인의 보물에 대한 인식과 이상세계에 대한
관념을 고찰함으로써, 한국인의 종교적 심성에 대해 좀 더 명확
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이다.

이러한 연구를 통해 종교적 교리와는 별도의 체계인 설화라는
형식으로 현재까지 널리 전해지는 특정한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
분석해봄으로써, 해인에 대한 믿음이 한국인에게 있어 광범위하
고 심층적인 형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밝힐 수
있을 것이다.

그리고 필자는 해인설화가 전승되고 있는 현황을 살핀 다음,
그 내용이 서로 조금씩 다른 점을 자세히 비교하여 해인설화의
기본적인 구조를 밝혀보겠다. 또 해인설화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
분석하여 해인설화의 구조를 살펴보고 그 바탕을 구성하는 민중
의 의식을 확인해 보겠다.

일반적으로 설화(叢話)는 "민중들의 이야기 또는 민간에 전승
되는 이야기"라는 뜻으로 사용된다. 설화는 일정한 구조를 가진
이야기이기 때문에, 일상적인 산본잡담이나 말로써 전하는 역사
적 사실은 그 범주에 넣을 수 없다. 따라서 설화는 사실 자체를 그
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, 흥미와 교훈을 위해 사실적으로
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. 설화는 구전(口傳)됨으로써 그 존
재를 유지해 가는데, 보통의 말로써 이루어지며, 이야기의 구조에
합입어 전승된다. 즉 화자(話者)는 이야기의 세세한 부분을 그대
로 기억하여 고스란히 전승하는 것이 아니라, 그 이야기의 핵심
이 되는 구조를 기억하고 여기에다 화자(話者) 나름의 수식을 덧붙
여서 전승한다. 따라서 설화는 구전에 적합하게 단순하면서도

잘 짜인 구조를 지니며, 그 표현 역시 복잡하
지 않다.

해인은 지금도 전승되는 이야기

한편 설화는 보통 신화(神話), 전설(傳說),
민담(民譚)으로 나누어지며, 전승자의 태도,
시간과 장소, 증거물, 주인공, 주인공의 행위,
전승의 범위 등에 의해 차이가 난다. 해인이라
는 보물이야기는 지금도 마을 촌로들에
의해 전승되는 살아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
해인설화의 현황을 통해 알아보고, 각기 달
리 전승되고 있는 해인설화의 내용의 차이
와 공통되는 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자.

이른바 어떤 이야기가 과연 언제부터 민간에 유포되었는지를
정확하게 아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. 그리고 특정 개인이 수집
한 해인설화는 그 객관성을 검증받을 길이 없다. 따라서 필자는
문자로 기록된 자료로 제한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설화모음집인
『한국구비문학대계(韓國口碑文學大系)』(한국정신문화연구원,
1980-1988)에 수록된 설화 가운데 해인설화로 볼 수 있는 설화
들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.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해인설화가
전국 각지에서 전승되고 있을 것이며, 향후 체계적인 조사에 의
해 채록되고 연구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.

필자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의 설화 가운데,
해인설화(海印說話)로 분류할 수 있는 설화는 모두 16편이
다. 여기서 해인설화는 "해인(海印)과 관련이 있는 설화"로 정의
할 수 있다. 그리고 필자는 비록 제목에 직접적으로 '해인'이라
는 표현이 없더라도 용왕의 아들에 의해 얻은 보물에 대해 이야
기하는 설화도 해인설화에 포함시켰다. 아래에 나열된 설화의
순서는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의 책 번호에 따랐는데, 설화의 제
목과 수록 부분은 다음과 같다.



용왕도

가. 해인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는 설화군

- ① '해인사의 유래'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1-1 서울특별시 도
봉구편
- ② '해인의 유래'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2-1 강원도 강릉·명주
편
- ③ '해인의 신통력'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2-9 강원도 영월군
편②
- ④ '해인의 유래'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4-4 충청남도 보령군
편
- ⑤ '용궁왕자 자리의 보은'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5-2 전라북
도 전주·완주군편
- ⑥ '용궁에서 가져온 해인(海印)'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5-4 전
라북도 군산시·옥구군편, 920-924쪽
- ⑦ '용궁에서 가져온 해인(海印)'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5-4 전
라북도 군산시·옥구군편, 1,100-1,104쪽
- ⑧ '해인사 연기설화'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6-9 전라남도 화

- 순군편①)
- ⑨ 「용자(龍子) 구해주고 해인(海印) 얻은 노재상(老宰相)」, 『한
국구비문학대계』 7-8 경상북도 상주군편
- ⑩ 「용궁에서 얻은 해인(海印)과 서산대사」, 『한국구비문학대
계』 7-13 대구직할시편
- ⑪ 「용자(龍子) 도와주고 얻은 해인(海印)」, 『한국구비문학대
계』 7-13 대구직할시편
- ⑫ 「경주 최부자와 해인(海印)」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7-16 경
상북도 구미시 선산군편 ②
- ⑬ 「해인사의 장건유래」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8-13 경상남도
울산시 울주군편②

나. 해인이라는 용어가 들어 있지 않은 설화군

- ① 「서산대사가 얻은 연적(漣滴)의 신통력」, 『한국구비문학대
계』 2-8 강원도 영월군편①)
 - ② 「용왕 아들 가르친 울곡 선생」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2-9 강
원도 영월군편②
 - ③ 「울곡 선생과 개」, 『한국구비문학대계』 5-3 전라북도 부안
군편
- 다음호에 계속
- 김탁 박사 / 신종교연구가-
- 필자 소개: 김탁 박사는 1963년 생으로 한국정신문화연구원
(현 한국학중앙연구원) 부설 한국학대학원에서 철학박사학위를
받았으며, 『증산교단 미륵신앙의 성립과 전개』외 40여 편의 논문
과 『조선의 예언사상』(2016), 『일제강점기의 예언사상』(2019),
『정감록과 격암유록』(2021), 『증산사상과 한국종교』(2022), 『시
루와 배』(2023) 등 12권의 책을 저술한 신종교 학계의 저명한
연구가로서 알려져 있습니다. 전라북도 무주 산골에 거주하며
서 오직 학문 연구에 매진하시는 김 박사의 글은 독자들에게
유익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. 많은 관심 바랍니다.*

(지난호에 이어서)

4. 실제 단군조선의 역사는 얼마나 되었나?

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 의해 기원전
1446년경에 출애굽의 역사를 통하여, 약
속의 땅 가나안을 점령할 때, 단지와 민족
은 가나안 땅 '소라' 일대에서 약 400여 년
을 블레셋 민족과 항쟁하며 살았습니다.
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(士師)였던 단지
파 장수 삼손이 죽게 되자, 단지와 부족
은 기원전 1200년경에 '소라'와 '테셀라이
스'지역을 떠나 동북방으로 사라지게 됩
니다. 여기까지가 성경에서 잃어버린 이
스라엘 단지와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
살던 하늘의 역사입니다.

이들은 이미 조상 야곱 하나님과 열두
형제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때로부터 약
900년의 기간을 하나님을 신앙하며 살아
왔고,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새로운 하늘
나라를 세우고자 주변 민족과 싸우면서
살았던 민족입니다. 이러한 단지파가 가
나안 복된 땅을 떠나게 된 이야기가, 우리
역사에서는 '단지파'의 이름을 바꾸어 환
인(하나님)의 '서자환웅'의 무리가 하늘로
부터 파미르와 바이칼호 일대에 내려와
살게 되었다는 신화가 시작됩니다.

이스라엘의 잃어버린 부족 '단지파' 곧
서자 환웅의 무리가 파미르 산과 알타이
산맥을 넘어 바이칼 호 일대로 이동하여, 상
당 기간 머물며 목축을 하면서 살게 됩니
다. 그러다가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며, 더
살기 좋은 동방으로 옮겨와 신시를 열고
뒤를 이어 단군왕검이 고조선 건국함으
로써 천손 단군민족의 역사가 맥을 잇게
되는 것입니다.

문제는 우리 역사를 오랜 역사임을 자
랑하며, 반만년 역사 또는 9000년 역사로
끌어 올려 중국의 신화보다 앞섰다는 것
을 강조하다 보니, 실제 우리 역사의 정체
성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.

환단고기에는 환인시대 12환국이 있어
서, 그들이 수메르와 유럽 아프리카로 뻗
어 나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, 실제 환
인과 환웅의 정체성을 성경에서 찾아본다
면, 고대 이스라엘 12지파의 역사를 확대
해서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우리
민족이 삼신할머니, 삼입신고, 삼칠기도,
금강산 일만이천 봉, 열두 대문 등, 3수와
12수를 즐겨 쓰는 이유도 바로 이스라엘
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12지파의 역사에
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단군 민족의 뿌리 역사 II

1. 한국 고대사는 중복되고 뒤틀린 역사입니다

제1부에서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를
이어주는 환인의 서자 환웅의 정체가 이
스라엘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이
라는 것을 성경 창세기 내용을 들어 예시
했습니다. 우리 역사에서 고조선 건국이
BC 2333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역사에
서 노아 홍수(BC2418) 이후 역사와 유사
하기 때문에 단군 조선의 역사 속에 환인
과 환웅과 단군왕검의 역사 연대기가 모
두 함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

물론 노아 홍수 이전의 역사를 환인 시
대로 본다면 그 또한 환인의 역사는 신화
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. 환단고기 태백
일사 삼신오제본기에는 태초에 삼신이 있
어 숨을 불어넣어 만물을 만드셨다.

하여 성경 창세기의 만물 창조 신화와
유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이러
한 역사관은 성경을 가져오지 못한 단지
파 민족의 구전된 설화가 한국 고대사를
중복되고 뒤틀리게 꾸몄다고 할 수 있습

니다.
이렇게 한민족의 실제 뿌리 역사를 성
경과 비교해 볼 때 연대기가 많이 축소되
는 것은 막연하게 구전되어온 하늘나라
환인의 역사까지 기록하다 보니 우리 역
사 연대기가 뒤엉켜 무한정 늘어났음을
이해할 때 우리 역사를 바로 볼 수 있습니
다.

이처럼 우리의 고대사는 중국에 고조선
의 패망함으로 완전히 역사를 잃어버리
고 후대에 와서 중국의 역곡편 역사와 구
전된 역사를 인용하여 서술하다 보니 신
화의 역사가 되었고 실제 기록으로 전하
는 성경 역사와 상당한 시간의 차이가 있
습니다. 이제 우리 한민족이 환인의 서자
환웅의 자손이요 고조선을 건국한 단군왕
검의 후손이라고 인정한다면 서자환웅의
정체성을 인류 최고의 역사서이자 만인이
읽고 신앙하는 성경에서 찾을 때 역사의
정통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즉 서자환웅의 하늘의 역사를 성경 역
사에서 찾아보면 이스라엘 야곱 하나님의
서자이면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단이 바
로 그 주인공임을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.
곧 야곱 하나님의 서자이면서 장자권을
계승한 단이 우리 역사에서 환인의 서자
환웅입니다. 말하자면 단의 후손 단지파
가 하늘나라 역사와 땅의 역사와 고조선
과 맥을 이어주는 환웅의 무리 3천이 되
는 것입니다.

무엇보다 지금까지 성경상의 잃어버린
이스라엘 단지파 무리가 바로 서자환웅의
무리요 그들의 후손이 단군민족임이 밝혀
지게 되었다는 것은 세계사를 뒤집는 경
천동지할 대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.

혹자는 우리 고대 12환국의 역사로부터
수메르 문화와 유럽 아프리카 인종에 이

르기까지 모든 인류가 퍼져 나갔다고 하
나 분명 그럴 수 없는 것은 우리 민족이
지구 어디선가로부터 삼신 하나님을 신앙
하던 민족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
으로 이동해 온 단군민족이라는 것을 고
찰할 때 역사를 보는 새로운 인식과 과학
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.

이에 대하여 차후 우리 민족이 이스라
엘 단지파 민족인 이유를 입증하면서 보
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2. 성경에서 본 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은 누구인가?

삼국유사에 서자환웅과 웬너 사이에서
단군왕검을 낳았다는 과정의 이야기를 성
경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 창세
기 30장 3절 이하에서 단의 출생 배경이
삼국유사의 내용과 유사하게 기록되어 있
습니다.

즉 야곱 하나님에게는 본처 라헬과 첩
이 되는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. 그런데
언니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을 동안 본
처 라헬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되자 남편
야곱 하나님께 간청하여 자기도 아들을
낳게 해달라고 합니다.

야곱 하나님은 자기도 인위적으로 할
수 없다고 하자 본처 라헬은 자기의 몸중
발하를 남편에게 주어 아들을 낳으면 양
자로 입양하여 자기 아들로 키우기로 약
속하게 됩니다. 그리하여 태어난 아들이
야곱 하나님의 다섯째 아들 단입니다.

단에게는 위로 이복형들이 네 명이나
있고 태생적으로 씨받이로 태어난 서자의
신분이지만 본처 라헬과 야곱 하나님의
약속하에 태어난 아들이기 때문에 본처
라헬의 적장자가 됩니다. 단의 의미는 고

대 히브리어로 억울함을 풀다 재판관 심
판관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. 이는 곧
단을 통하여 본처 라헬이 자식을 낳지 못
한 억울함을 풀게 되었다는 뜻이 담겨 있
습니다.

훗날 야곱 하나님이 늙어서 마지막으로
열두 아들에게 장래 일을 축복할 때 '단은
그 백성을 심판하리라'라고 하여 하나님
의 직계 장자로서 신의 권한을 승계하는
심판관을 물려주었습니다. 이것이 우리
역사에서 환인의 서자 환웅이 아버지로부터
천부인 3개를 받아 이 땅에 내려와 널
리 인간을 이롭게 하였다는 표현이 되는
것입니다.

그런데 단이 출생한 후 야곱 하나님의
본처 라헬에게도 늦동이 요셉과 베냐민이
라는 두 아들이 태어났지만 이미 이복형
이 되는 단이 본처의 장자로 입양되었기
때문에 요셉이 가문의 적장자가 될 수 없
는 상황이 되었습니다. 요셉이 성장하면
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자 형제
들의 시기과 질투를 받아 어린 나이에 애
굽으로 팔려 가게 됩니다.

거기서 요행히 곡물을 잘하여 애굽의
바로왕으로부터 총리로 발탁되어 7년 대
한의 기근 때 양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을
발견하고 그의 부친과 형제의 가족들을
애굽 땅으로 오게 하여 편히 살도록 보살
피움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의 기틀이 마련
된 것입니다.

그런데 야곱 하나님이 늙어서 임종을
앞두고 열두 아들을 불러 장래 일을 예언
하고 축복할 때쯤의 큰아들 르우벤과 본
처 라헬이 낳은 요셉보다는 오늘날 유대
민족의 시조가 되는 유다와 단군민족의
시조가 되는 단에게 더 큰 축복을 하게 됩
니다. 즉 유다에게는 장래에 실로 즉 메시
아가 올 때까지 그 민족을 다스릴 왕의 권
세를 축복하였고 (창49:8-10)
단에게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

그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는 인류 구원의
심판관을 축복했습니다 (창49:16-18) 이
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
활을 마치고 모세에 의해 출애굽 한 후 가
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단지파는
그 땅에서 가장 강한 블레셋 민족과 2백
여 년을 싸우게 됩니다.

그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
장수가 미인계에 빠져 죽게 되자 단지파
부족은 싸울 의지를 잃고 그들만이 형제
부족이 살던 가나안 땅 소라 지역을 떠나
새로운 기업의 땅을 찾아 동북방으로 떠
났던 것입니다.

야곱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적장자
와 장래 심판관을 축복받은 단지파 자손
들이 가나안 정복과정에서 그들 형제를
떠나 어딘가로 사라져 행방을 알 수 없게
되자 단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와 심사
만 사천의 성경 기록에서 빠져게 되었지
만 그들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진 것
이 아닙니다.

가나안 땅을 떠나던 당시 단지파의 무
리는 전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장정의 숫
자로만 약 6만 2천여 명이나 되었으니 남
녀노소 전체적으로 최소 20만~30만 명으
로 추산되는데 부족이었습니다. 그러므로
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하나님 섭리에 의
해 감추어 놓은 단지파 무리들이 결코 멸
망할 수 없는 것입니다.

우리 역사에서 신화로 꾸며진 환인의
서자환웅이 홍익인간의 큰 뜻을 품고 천
부인 3개를 받아무리 3천을 거느리고 하
늘에서 내려온 역사가 바로 단지파 무리
가 됩니다. 그들이 새로운 땅으로 이동하
여 새로운 하늘나라가 되는 신시개천의
주인공임을 입증할 때 한민족의 고대역사
는 생생하게 부활하게 되며 명실공히 하
나님의 직계 천손 민족임이 확인되는 것
입니다.* (다음호에 계속)

一行 徐輔睦